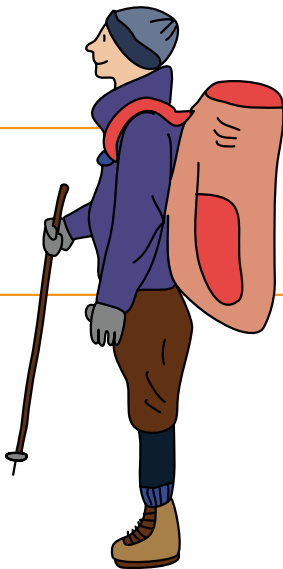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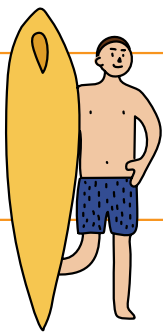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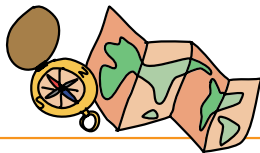


Part 2

여행지별



자연 명승지

1. 산
2. 숲
3. 바다, 섬, 갯벌
4. 강, 계곡
5. 동굴

유원 시설

1. 테마파크
2. 동물원
3. 식물원

계절별 지역 축제

1. 사계절 축제 안전
2. 봄 축제
3. 여름 축제
4. 가을 축제
5. 겨울 축제

기타 실내외 시설

1.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2. 경기장
3. 숙박 시설

여행지별 자연 명승지 종합 안내

산

구급약과 비상식량을 꼭 챙기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외 신고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와 독충, 뱀 등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 섬, 갯벌

방파제와 갯바위에서의 낙상 사고가 많으니,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섬이나 갯바위에서의 고립에 주의하며,
해양 스포츠를 할 경우 구명조끼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합니다.

강, 계곡

강과 하천, 계곡의 수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알아 보이는 물길에서도
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고립에 항상 대비하며,
계절별 안전 수칙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숲

숲속에서는 독충, 독버섯 등을 조심하며,
식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가벼운 산책길이라도 알맞은 옷차림과
신발을 착용하고, 언제나 2인 이상 함께
다녀야 합니다.

동굴

동굴에 들어가기 전, 비상 대피로와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굴 관리소 등 비상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또한 동굴 안 온도와 습도에 맞는
바른 옷차림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행지별_자연 명승지

1. 산



낮은 산부터 천 미터 고지의 산까지 산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에 오르내릴 때 체력 분배를 하며,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과 구급약,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행 전

초콜릿 등 비상식량과 충분한 물을 챙깁니다.
산의 기온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을 준비합니다.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산 전용 알기 예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출발 전 이동 시간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를 알립니다.
위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비상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산행 시

화재 위험이 있으니 산에서는 금연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과음은 자제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출발 전 준비 운동을 합니다.
등산로가 아닌 길은 가지 않도록 하며, 제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상체를 숙이고 내리막은 중심을 뒤쪽으로 두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산행 중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산행 후

산행 후에도 간단한 몸 풀기 운동으로 근육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서 벗어나 이동할 때 등산 스틱이나 배낭 등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산에서 이동할 땐 적절한 체력 분배가 필요합니다.



등산 30%



하산 30%



예비 체력 40%



사례 ① “가을 낙엽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을, 단풍놀이로 나선 40대 남성이 산에서 넘어졌습니다. 가을 산행을 가벼운 산책 정도로 여긴 이 남성은 등산 스틱과 같은 장비 없이 낙엽이 쌓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물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낙엽 속 물기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낙엽은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에서도 등산화를 착용하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② “산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당일 산행을 떠난 50대 여성은 다소 낮은 산이라 부담 없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행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쉬 후에 다시 길을 이어가려는데,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뒤리해서 길을 찾아 움직이면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표지판 등 사물을 찾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 신고한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

“음주 후 산행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박용환

등산이나 성묘 등으로 산에 가야 하는 경우 급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기력과 판단력에 지장을 주고 운동 능력과 지구력, 균형 감각 등 신체 활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담력은 높아져 위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은 이노 작용을 촉진시키고 탈수 현상을 높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요소가 무척 높습니다.

TIP

뱀, 진드기 주의!

곤충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에서 5~10cm 위쪽을 헝겊으로 느슨하게 묶어야 합니다.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면 안 되며, 부상자는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중독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알맞은 숨쉬기!

들숨과 날숨을 같은 간격으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가쁘다고 심호흡을 지속하면 산소 과다 섭취로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INFO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정보시스템 <http://mtweather.nifos.go.kr>

- 산, 휴양림 등 산악 날씨

산림청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http://forestfire.nifos.go.kr>

- 산불 위험 지역 및 산불예방정보

2. 숲



숲에서는 동식물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채취하면 피부병과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 옮을 수 있으니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삼갑니다.



숲

폭우, 강설,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숲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금연하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음주는 삼갑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시 전문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르며, 특히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소매가 긴 옷을 챙깁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체온 유지를 위해 소매가 긴 옷을 챙깁니다.
등산화, 트레킹화, 운동화 등 걷기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뿌리나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공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원 내 편의시설은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개인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릴 수 있으니 잔디나 풀속에 있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둘레길

둘레길 진입 전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충분한 물과 초콜릿 등 비상식량과 구급약을 챙깁니다.
트레킹은 2인 이상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식물 접촉

식물을 채취하다 상처가 날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식물 채취를 금합니다.
꽃가루나 잎 등을 통해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으니 식물 접촉을 삼갑니다.
벌이나 뱀, 독충이 나타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포획하는 경우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 옮을 수 있으니 야생 동물과의 접촉 행위를 삼갑니다.



사례 ① “꿀벌이 접근할 수 있으니 달콤한 향을 가진 간식은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2018년 여름, 비가 내린 다음 날 가족이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공원 심터에 앉아 음료수와 과일, 과자 등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꿀벌이 날아들었습니다.
꿀벌은 달콤한 향을 맡고 날아오기 때문에 음료수나 간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꿀벌이 날아오면 꿀벌을 쫓으려 과하게 움직이지 말고 음료수와 간식을 덮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꿀벌에 쏘이면 소지한 카드나 얇고 단단한 물건을 이용해 침을 제거하고 비눗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얼음찜질 등을 해주면 통증과 붓기가 가라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②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30대 남성은 지난 가을 단풍놀이를 다녀왔는데 저녁 무렵부터 팔과 목 부위가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식중독인가 싶어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고 했습니다.
꽃나무나 개꽃나무를 만지면 사람에 따라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열매도 만지거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기면 긁거나 자극시키지 말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 두드러기나 식은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합니다.

인터뷰

“숲길 걷기도 등산과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태현 주무관

산길은 자연 그대로의 길로 인공적인 시설이나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숲길은 자연 생태 공간에 인공적인 심터, 편의 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고, 숲 전문가들이 숲에 대한 안내와 생태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숲에서도 산처럼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연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TIP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은 후 깨끗한 천으로 덮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뱀에게 물리면 통증, 발열, 부종, 전신 발진과 호흡 곤란,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흥분하지 않도록 하며, 반지나 시계 등 장신구를 제거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INF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숲나들e www.foresttrip.go.kr
- 전국 자연 휴양림 정보 및 예약

여행지별_자연 명승지

3. 바다, 섬, 갯벌



해변은 물론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이동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해양 스포츠나 갯벌 체험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섬 여행 시 선박 이용 안전 수칙을 지키고 해상의 날씨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해안가

구명환 등 안전 관리 시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거나 테트라포드 간 이동하면 안 됩니다.
너울성 파도 발생 경고 표지판을 확인하고 파도가 많이 치는 방파제 끝단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 조개껍질 등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고,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갯벌

조개껍질 등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랜턴과 호루라기를 지니고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갯벌의 위치와 해수면을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야간 해루질**은 금합니다.
밀물 시간 전 알람을 맞춰 두고 안개와 해무가 발생하면 바로 철수합니다.
위급 상황 시 한 명은 환자를 돌보고 다른 한 명은 신고할 수 있도록 3인 1조로 움직이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사전에 알립니다.



섬

해상의 기상 상황에 따라 섬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날씨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해양 경찰에 신고하거나 섬 주민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해양스포츠

음주 후 수영은 사고력 저하와 저체온증,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 물기가 많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합니다.
레저용 선박을 이용할 때는 안전 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테트라포드: 방파제나 방조제의 침식 방지를 위한 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
**해루질: 물 빠진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활동

사례 “생존 수영법을 익혀 둡니다.”

2018년 여름 한 초등학교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침착하게 학교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떠올렸고, 해경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13분을 잘 버티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생존 수영법은 위급 상황 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수영법이니, 사전에 습득해 위급 상황 시 활용하도록 합니다.

[생존 수영법]

1. 누워뜨기

배영과 비슷한 자세로 두 팔을 머리 위 또는 옆으로 쭉 편 다음,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편안한 자세로 하늘을 보고 눕습니다.

2. 새우등뜨기

체온 유지 효과가 높습니다.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팔로 무릎을 감싸며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호흡할 때는 팔을 풀고 서서히 고개를 물 밖으로 올려 숨을 쉬도록 합니다.



[참고 :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해양경찰청, 2018]

TIP

해양 안전 지도 챙기기!

전국 주요 해수욕장 위험 구역과 안전 구역을 표시한 지도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INFO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www.khoa.go.kr
- 해양 예보 방송, 조석 예보, 해양 활동 안전 가이드

4. 강,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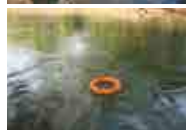


강과 계곡 트레킹을 할 때는 계절에 맞는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여름 물놀이나 겨울 빙상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얇은 물에서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 아동에 주의합니다.



공통 주의 사항

폭우나 강설, 안개, 돌풍 등 기상 악화 시 방문을 자제합니다.
계곡 트레킹이나 강변 산책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 동행합니다.
익수 사고를 발견하면 절대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구명환이나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준 후 신고합니다.



강

수상 레포츠를 체험할 때는 인증 받은 전문 업체를 이용하고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합니다.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얇은 물에서도 소용돌이에 주의합니다.
강의 방판에서는 얼음의 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음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얼음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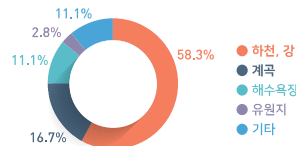


계곡

계곡 다이빙을 금하고 무릎 아래 높이의 물에만 입수합니다.
맨발 입수를 금하고 아쿠아 슈즈 등 기능성 신발을 신습니다.
얼음 트레킹 시 아이젠을 착용하고 등산 스틱을 이용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강과 하천, 계곡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출처: 국민안전처, 2015]



사례 ① “얇은 물에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계곡으로 여름 피서를 떠난 20대 남성은 허리 높이의 물속에서 홀로 수영을 즐기다 발을 헛딛어 넘어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물속 바위에 걸려 다리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계곡에는 돌이나 이끼가 많아 얇은 물에서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에는 2인 이상 동행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넘어져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깨끗한 천으로 눌러 지혈해야 합니다.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사례 ② “출입이 금지된 방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겨울 두 남성이 낚시를 하려고 방판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부근에는 출입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두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얼음 트레킹이나 얼음낚시는 허가된 지역에서만 하고, 볼펜과 같은 뾰족한 물건을 물에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방판이 깨져 물에 빠지면, 먼저 팔을 양쪽으로 뻗어 수면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 주고 뾰족한 물건으로 얼음을 찍으며 미끄러지듯 상체를 빼 내야 합니다. 몸이 다 빠져나왔어도 주변 얼음이 또 깨질 수 있으니 안전한 지역까지 구르면서 이동합니다.

TIP

구급장 챙기기!

여름철 강가나 계곡에 갈 때는 해충 방지를 위한 벌레 기피제를 챙깁니다.

물놀이로 인한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화제와 지사제, 진통제를 챙깁니다.

겨울에는 얼음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릅니다.

5. 동굴



동굴에 입장하기 전에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력을 고려해 관람해야 합니다. 동굴 안은 습도가 높아 바닥이 미끄러우니 이동할 때에는 난간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동굴 입장 전

입구의 비상 안내도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동굴 내부 벽면이나 천장에 물건이 부딪칠 수 있으니 등산 스틱 등이 어깨 높이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가방을 챙깁니다.

호루라기, 비상은박담요, 비상식량 등을 챙기면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모노레일로 이동 시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동굴 안

쭈거나 더울 때는 외투를 입거나 벗으며 체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동굴 내부는 습도가 높아 사방에 물기가 많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동할 때는 난간을 잡고 지정 통로를 이용합니다.

동굴 내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 촬영은 자제합니다.



와인 저장고 터널 및 땅굴

벽과 천장에 설치된 조명 및 내부 장식과 시설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관람객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땅굴 방문 시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며 허가된 구역에서만 관람합니다.



동굴의 온도와 습도에 맞는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동굴 평균 온도 및 습도

사례 ① “동굴 내부 계단은 특히 미끄럽습니다.”

처음으로 동굴을 방문한 여성은 안전 장비도 잘 착용하고 등산화를 신는 등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풍경에 감탄하며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합니다.

동굴 내부는 습도가 높아 통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동굴 안 계단은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져 더욱 미끄럽습니다. 이동할 때는 항상 난간을 잡고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② “체력을 고려해 관람해야 합니다.”

안보 관광에 나선 40대 남성은 부모님과 함께 땅굴을 방문했습니다. 땅굴 입구까지 모노레일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해 막대한 터널을 지나야 하는 모노레일보다 도보 이동이 좋을 것 같아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굴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안보 관광지인 땅굴은 이동 거리가 길고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방문 전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체력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고·저혈압 환자, 심신 허약자는 땅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동굴 고립 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훈련교육과 신동인 소방위

동굴 안에서 고립되었을 때는 휴대폰이나 호루라기를 이용해 외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구조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려야 하고,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생수로 상처 부위의 오염 물질을 씻어낸 후 깨끗한 천으로 감싸야 합니다.

또한 동굴에 들어갈 때는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용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TIP

동굴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니 낮은 자세로 기어서 대피합니다.

동굴 내 물을 이용해 천을 적신 후 코와 입 등 호흡 기관을 보호합니다.

여름에는 공기가 밖으로, 겨울에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니 기상에 따라 다른 공기의 흐름을 기억합니다.

옷에 불이 붙은 경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꺼야 합니다.

계단으로 대피 시 사람 간 부딪히는 2차 사고에 주의합니다.

안전시설 및 장비 위치 확인!

비상 대피로, 소화기, 비상등, 유도등, 제세동기, 산소 호흡기, 방독면, 소방펌프 및 소방용수 등 안전시설과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여행지별 유원 시설 종합 안내

테마파크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출입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놀이 기구에 탑승할 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소지품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며 사진 촬영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원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동물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원에 다녀온 후에는 바로 목욕을 하고
외출복은 세탁합니다.

식물원

식물을 손으로 만지면 알레르기나 풀독 증상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며, 벌이나 뱀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람할 때는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1. 테마파크



테마파크에서는 입장할 때나 이동할 때, 놀이 기구 탑승 전후와 탑승 중에도, 모든 순간마다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며, 많은 인파 속에서 일행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동 시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시설물이나 다른 사람과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어린이는 미아 방지 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합니다. 안전 울타리 내부나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 시 주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이 기구 탑승 대기 시

실내 놀이 시설인 경우 피난 안내도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대피 경로를 익힙니다. 입구에 고지되어 있는 안전 점검 표지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장 제한 및 건강 상태 등 기구 탑승 조건을 확인합니다.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지 말고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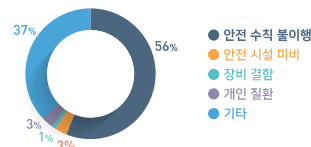
놀이 기구 탑승 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장신구는 소지품 보관함이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르며 출발 전 안전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에게 알립니다. 출발할 때의 탑승 자세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탑승 중 안전벨트나 안전바 등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탑승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셀카봉 등을 이용한 사진 촬영을 삼갑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놀이 기구는 운행 중 안전 센서 작동으로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행 중 정지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내 방송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정지 지점에서 비상 하차 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하차합니다.



놀이 시설 사고 원인별(%)
실내 소규모 놀이시설 포함 전체 유원 시설 대상
[출처 : 주권 안전사고 예방, 행정안전부, 2018]

안전 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정해진 손잡이는 꼭 잡도록 합니다.”

테마파크 내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던 한 학생이 급정거 구간에서 정면 구조물에 코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좌석 앞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용하다가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롤러코스터 등 속도가 빠른 놀이기구는 하강, 정차, 회전 시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좌석 앞과 옆의 지정된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례 ② “소지품이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 기구에 탄 학생의 주머니에서 물건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 속 소지품은 놀이 기구 탑승 전 소지품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전을 위해 아이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에버랜드 안전환경그룹 박진우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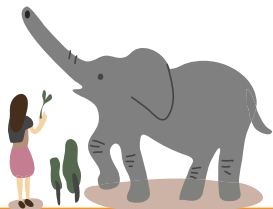
테마파크에는 보호자와 같이 입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주시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방심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넘어져 얼굴이나 무릎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TIP

집결 장소 지정!

입구에 들어서기 전 일행과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만날 장소를 정해 둡니다. 어린이와 동행한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내소와 직원들의 위치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보호자와 헤어졌을 경우에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동물원



동물원을 방문할 때는 생태계 교란 방지와 전염병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원 직접 만지는 행위는 삼가고 정해진 공간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동물원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외출복은 세탁해야 합니다.



방문 전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되지만 장애인 안내견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니 사전에 문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돼지 열병 등 법정 동물 전염병 발생 시에는 방문을 자제합니다.



동물원 내

전시 시설별 안내 및 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육사나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손이나 머리 등 신체부를 넣지 말고 물건이나 음식을 던지지 않습니다.
난간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으며 유리창이나 울타리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관람 시 목말을 태우거나 높이 들어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물을 깨우지 않으며, 플래시를 이용한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어린이를 동물 가까이 두거나 난간 안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내와 설명을 집중하여 들읍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체험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읍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음식물 냄새는 동물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동물을 직접 만지면 다양한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혀서 상처가 생길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관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후

귀가한 후에는 바로 목욕을 하고 외출복은 세탁합니다.
동물원 방문 직후 발열이나 두드러기 등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합니다.

동물원은 중요한 교육 공간입니다.

동물원의 역할

교육	종의 보존	과학적 연구	오락 및 휴식
----	-------	--------	---------

사례 ① “작은 동물도 야생성을 가집니다.”

동물원을 방문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먹이를 주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아이가 동물의 발톱에 긁히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작은 동물도 야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들은 먹이를 보면 흥분하기 쉽습니다. 동물 체험 중에는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동물을 만지려는 행동은 자제시키도록 합니다.



사례 ② “목말을 태우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로 동물원을 찾은 한 남성은 아이에게 동물을 잘 보여주기 위해 목말을 태웠습니다. 그러다 다른 관람객에게 밀려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관람할 때나 이동할 때 목말을 태우거나 높이 들어 올리면 다른 관람객이나 시설물과의 충돌로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

가까운 병원 위치 확인!

방문하는 동물원과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동물에 의해 상처가 났을 때, 걸음으로 보이는 상처 부위가 크지 않더라도 동물의 침 등 체액을 통한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항생제, 파상풍 예방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카페 주의!

소규모 동물 카페 방문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어도 귀가 후에는 바로 목욕을 하고 외출복은 세탁합니다.



INFO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 감염병 및 일반 질병 건강 정보

여행지별_유원 시설

3. 식물원



식물원 관람을 할 때는 시설물이나 다른 관람객과의 충돌에 주의하고 관람에 집중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뱀이 출현할 수 있으니 앞을 잘 살피며 걷고 벌에 쓰이지 않도록 단 음식을 섭취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준비

강풍이나 폭우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방문을 자제합니다.
기상 악화 시 방문한 경우 우산을 챙겨 머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원할 경우 식물원의 노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합니다.



입장 전

비상 대피로를 확인하고 안내소와 의료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어린이는 가시 등을 만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사전 안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관내 비상 연락처를 미리 저장합니다.



실외 관람

화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정된 관람 통로를 이용하여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 보기 위해 몸을 숙이거나 뒷걸음치다가 시설물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풀둑이나 유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식물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뱀이나 벌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온실 관람

온실은 통풍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식 섭취는 삼갑니다.
실외보다 공간이 협소해 관람 중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인터뷰

“식물원에서도 충돌이나 낙상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수목원 안태현 주무관

식물원에서 대부분의 관람객은 천천히 걷고 조용히 관람하는 편이지만, 식물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거나 뒷걸음질 칠 때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물원은 자연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꾸며 놓은 곳이기 때문에 화단에 돌이나 나무 등 장식이 많습니다. 관람할 때 주변을 잘 파악하고 자칫 넘어져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① “다른 관람객과의 충돌을 조심합니다.”

식물원을 방문한 한 남성은 관람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다른 관람객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통로에 넘어져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화단 가까이에 있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식물만 집중해서 보면 다른 관람객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식물원 내 이동 통로는 좁은 경우가 많으니 관람 중에는 주변을 살피고 다른 관람객이 지나갈 때 비켜주도록 합니다.

사례 ② “뱀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 실내 식물원을 찾은 가족은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며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보다 앞서가던 아이들이 뱀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고, 직원에게 바로 알려 큰 사고는 없었지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식물원에는 뱀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뱀이 몸을 말리기 위해 햇빛이 잘 드는 통로 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뱀이 보이면 직원에게 바로 알리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긴 막대기나 등산 스틱 등으로 땅을 툭툭 치고 뱀을 놀라게 해서 쫓아야 합니다.



TIP

꿀벌 쓰임 조심!

단 음료수나 간식은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밀봉하도록 합니다.
꿀벌이 날아오면 움직임을 줄이며 천천히 걸어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꿀벌에 쏘였을 경우,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침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과 비누로 상처 부위를 씻어냅니다.
전선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혀가 붓고 목이 조이는 느낌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풀둑 주의!

풀둑은 식물과의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식물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발생하면 증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냉찜질을 해주면 완화됩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합니다.



INFO

산림청 국립수목원 식물교실
www.forest.go.kr / 031-540-1033
- 식물교실 정보 안내 및 신청

여행지별 계절별 지역 축제 종합 안내

여름 축제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놀이나 수상 레포츠 활동 시 구명조끼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을 축제

건조한 기후와 돌풍에 주의하며 태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등이나 불꽃과 관련된 행사 관람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지정 장소에서 관람하도록 합니다.

사계절 공통 주의 사항

축제장에는 시설물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동 시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장으로 가기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나 신발, 비옷, 우산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봄 축제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주의하며,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 축제

방한용품 준비해 한파에 대비하고 눈이나 빙판에서의 주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여행지별_계절별 지역 축제

1. 사계절 축제 안전



축제장에는 행사 부스와 무대 시설물이 많으니 이동 시 충돌에 주의하며, 특히 바닥 안전선이나 머리 위 전선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문 전 날씨와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장 가기 전

축제 지역의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알맞은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물티슈, 간담 걸옷, 돗자리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장 주변과 주차장에 사람과 차량이 많으니 저속 주행을 해야 합니다.



축제장 입장 전

축제장 안내도를 확인해 안내소와 의무실의 위치를 알아 둡니다. 어린이에게는 안전 주의 사항을 사전에 알려 줘야 합니다. 안전 요원과 직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축제장에서

강풍,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건물 안이나 지정된 대피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중품 소지는 피하고 개인 소지품을 잘 챙기도록 합니다. 공연 관람 시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 충돌에 주의하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며 관람해야 합니다. 야간 축제 시 이동에 주의하고 불과 빛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시설물의 화재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금연하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음주는 자제합니다.



축제장에서 시설물 주의

바닥에 안전선이나 시설물, 줄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조명, 간판, 기둥 등의 시설물 주변은 피하고, 머리 위로 애드벌론 줄이나 전기선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공연 관람 시에는 음향 기기, 촬영 장비 등의 무대 시설과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관람시설과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전기나 가스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니 부스 뒤편이나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미세먼지!]

축제장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주의 경고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orea Filter 약자인 KF로 마스크 등급을 표시합니다.
- * KF 등급과 함께 의약 외품 허가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세탁 후에는 기능이 저하되고 마스크 내 습기로 인한 세균 증식이 있을 수 있으니 1회만 사용해야 합니다.
- * 보건용 마스크는 원활한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심뇌혈관, 천식 등의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를 선택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을 지킵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 전염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IP

여행자 보험 가입!

축제장 방문 전 만일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후에도 안전!

축제장 방문 후 귀가하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외출복은 바로 세탁합니다. 눈이나 호흡기, 피부 등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주변 병원 및 약국 위치, 운영 시간, 야간 및 주말에도 진료 가능한 병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별_계절별 지역 축제

2. 봄 축제



봄철 축제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또한 일교차 및 찬바람 등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축제장에서

뱀이나 벌이 출현하면 함부로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해충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바닥에 앉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하며, 잔디나 풀숲 위에 걸옷을 벗어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해빙기의 산과 숲, 흙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 일교차와 찬바람에 대비해 체온 유지용 걸옷을 챙기도록 합니다. 수상이나 수변 축제장에서는 구명환의 위치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참여 시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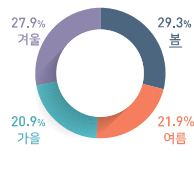
봄철 화재

산간 지역 축제장에서 흡연이나 화기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찰 축제에서는 초나 불 사용에 주의하며, 소화기 등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도록 합니다.

황사

꽃가루와 황사, 먼지로 인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으로 코와 입 등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먼지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안경이나 선글라스, 긴 옷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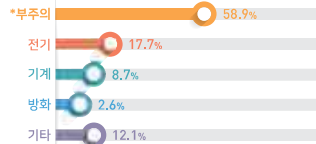
부주의로 인한 봄철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절별 화재발생률(%)

[출처: 화재발생분석자료, 소방청, 2019]

봄철 화재 63,513건 (사망 436명), '14~'18



*부주의: 담배꽂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불씨 불꽃 방치 등

봄철 화재 발생 원인(%)

[출처: 화재발생분석자료, 소방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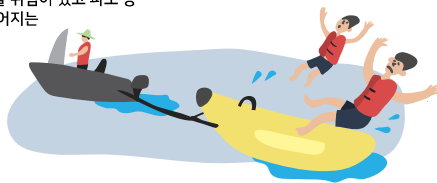
사례 ① “축제장 공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람해야 합니다.”

2009년 5월, 한 지역에서 봉화대 재현 축제가 있었습니다. 연기자들의 공연 퍼포먼스에 이어 봉화대 재현을 시작하려는데, 준비되어 있던 연막탄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이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불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땐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례 ② “수변이나 수상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2015년 5월 한 강변에서 열린 봄맞이 축제장에서 수상 레저 보트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였고 구조도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수상에서는 시설물이나 보트 간의 충돌 위험이 있고 파도 등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보트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수상 레저 보트를 이용할 때는 물론 수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도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TIP

풍등 주의!

풍등은 추락 및 낙하 시 화재, 교통사고, 유독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니 지정된 장소에서만 날리도록 합니다.



눈에 연기, 재, 먼지 등이 들어갔을 때 처치 방법을 기억합니다.
 * 눈을 비비지 말고, 눈을 감박겨려 눈물과 함께 이물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 흐르는 물로 눈을 행구도록 합니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눈을 행구기 전 반드시 렌즈를 빼야 합니다.

여행지별_계절별 지역 축제

3. 여름 축제



여름 축제는 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며 축제 프로그램이나 수상 레저 기구 체험 시 구명조끼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공통 주의 사항

태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자동차 이동은 삼가고 물에서 최대한 떨어진 대피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르고, 안내 방송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바다 수영, 갯벌 체험, 바다 길라잡이 축제에 참여할 때는 밀물과 썰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변이나 수상, 수중 체험 시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식중독에 주의하며 찬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습니다.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물놀이 체험

바닥이 미끄러우니 맨발 이동을 자제하고 아쿠아 슈즈 등 기능성 신발을 신습니다.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 물에 들어가며, 무리하게 뛰지 않아야 합니다.
저체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물속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 체험

수상 레저 기구 체험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레저용 선박을 이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를 직접 운행할 때는 다른 기구나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사례 ❶ “안전 장비 착용은 의무입니다.”

2015년 여름 해변에서 자신의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한 남성은 귀찮은 마음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운행 후 선착장에 돌아와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기구에서 추락하거나 다른 기구와의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물론 직접 운행을 할 때도 구명조끼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례 ❷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여름 해변 축제에서 야간 공연을 관람하던 한 여성은 어디에선가 물려온 사람들에게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파에 밀려 쉽게 일어나 빠져나오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해변 공연은 열린 공간이라는 특징으로 인원 제한이 어려워 갑자기 인파가 몰릴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시에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이나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여름철 활동 시 폭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되도록 격렬한 활동은 삼가며, 야외에서는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모자를 써서 햇볕을 피해야 합니다. 활동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수시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냉방이 되는 건물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해변 바닥 상태 주의!

동해는 경사가 급한 모래사장, 서해는 조개껍질이 많은 갯벌, 남해는 자갈밭이 많습니다.
해변마다 바닥 상태가 다르니 축제에 참여하기 전 알맞은 신발을 신고, 이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 조심!

높은 온도에서의 충전기 사용이나 장시간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지별_계절별 지역 축제

4. 가을 축제



가을 축제의 경우에도 봄철과 같이 불이나 불꽃을 활용한 경우가 많고, 건조한 기후에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 수 있어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교차 등 기온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축제 장소와 활동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통 주의 사항

음식이나 공예 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고 체험 중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으니 개별 폭죽 사용은 자제합니다.

행사별 주의 사항

등, 불 축제 참여 시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직접 접촉은 금합니다.
불꽃 축제 참여 시 불꽃 준비 구역 및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명을 활용한 축제 참여 시 전기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풍, 억새 등 산간 지역 축제 시 화재 위험에 주의합니다.
철새 여행지에서는 조류 감염에 주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찰합니다.

질병 노출 주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건조가 지속되면 가려움증이나 건선에 걸릴 수 있으니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와 먼지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야생 진드기나 쥐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 잔디나 풀숲에 있을 때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사례 ①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합니다.”

2014년 가을 열린 소규모 음악 축제에서 무대를 가까이 보고 싶던 사람들이 무대 주변 환풍구에 올라서면서 환풍구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축제장 내에 설치된 무대는 대부분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람이 몰리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난간을 넘어서는 행위나 환풍구 등에 올라서는 행동은 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해야 합니다.

사례 ② “건조한 기후와 가을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3년 10월 지역 불꽃 축제에서 불꽃을 터트리던 중 강풍이 불어 불꽃과 재가 주변으로 날렸습니다.
다행히 불꽃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관람하던 사람들의 눈에 재가 들어가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조심해야 합니다.
불꽃 공연을 관람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 때는 눈과 호흡기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인터뷰

“축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훈련교육과 신동인 소방위

화재 연기에는 열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기가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대피해야 합니다.
깨끗한 천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가리고 미세한 위험 입자의 흡입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벽을 의지해 외부로 탈출합니다.



TIP

야생 진드기 주의!

긴 옷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차단하고 걸옷을 풀이나 땅 위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행지별_계절별 지역 축제

5. 겨울 축제



겨울 축제장에서는 눈과 얼음의 결빙에 주의해야 하며 철저한 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전 구역을 확인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축제장 가기 전

장갑, 모자, 미끄럼 방지 신발 등 방한용품을 준비합니다.



공통 주의 사항

눈이나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야외 활동 시 탈수가 올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해넘이, 해맞이 축제

야간 이동을 해야 하므로 휴대용 랜턴을 준비하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공간을 확보하며 이동합니다.



썰매, 눈썰매

헬멧과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2인 이상 동행합니다.
썰매를 탈 때 시설물이나 다른 썰매와의 충돌에 주의합니다.
눈썰매 체험 시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출발해야 하며, 도착지에서는 안전선 밖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얼음낚시

익수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구멍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위험하니 난방 기기 사용을 금합니다.
위험 구간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직원이나 안전 요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사례 ① “썰매 간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2006년 겨울 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요원의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도착지에서 미처 자리를 비키지 못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눈썰매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딪히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 도착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을 조절해야 하며, 도착 후에는 빠르게 안전선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사례 ② “얼음의 결빙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6년 2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무시한 두 남성이 얼음 위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얼음이 깨져 물속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음의 결빙 상태는 절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경고 표시가 있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결빙기와 해빙기, 혹은 기온이 올라간 날에 얼음 위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광 화상에 주의하며 응급 처치 방법을 기억합니다.

- * 일광 화상은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 * 야외 활동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30분 후 외출해야 하며, 2시간마다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 * 만약 일광 화상을 입으면,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화상 부위에 올려 화기를 뺀 후 보습제를 바릅니다.
- * 통증이 심할 땀 진통제를 복용하고 물집이 생겼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뒹아 합니다.

TIP

얼음낚시 주의!

얼음의 두께는 20cm 이상이어야 하며, 얼음 구멍들 사이의 간격은 1m 이상 되어야 안전합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구멍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얼음이 녹고 있다는 신호

얼음 구멍을 뚫을 때 빠지직하는 소리가 나면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주변에 물이 녹아 차오르거나 얼음 구멍에서 물이 보글거리면 얼음이 녹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얼음이 녹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하면 자리를 옮기고 안전 요원이나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행지별

기타 실내외 시설 종합 안내



여행지별_기타 실내외 시설

1.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문화 예술 공간은 하나의 여행 목적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부터 독특한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 각종 공연 및 전시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실내 관람

의료 시설 및 안전 요원의 위치 또는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비상 대피로를 확인하고 정전 시 유도등을 따라 이동합니다.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입장합니다.
레이저 효과 사용 시 레이저를 직접 쳐다보지 않습니다.
펜스를 뛰어넘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야외 관람

야외 관람 공간 출입 시 안전 주의 사항 표지를 확인합니다.
관람 목적의 체험 기구 이용 시 기구 안전에 주의합니다.
야외 분수에서 튜브나 장난감 사용을 금합니다.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예상되는 위급 상황: 붕괴, 압사, 추락, 화재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높은 건물에 고립된 긴박한 상황에는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몸을 낮추고 호흡기를 보호하고, 방향 구분이 어려운 경우 벽이나 내부 구조물을 확인하며 대피합니다.
안내 방송과 안내 요원의 지시를 따르고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① “낙후된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 운영하던 미술관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술관 관리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습니다.
낙후된 건축물의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창틀이나 문이 갑자기 뒤틀리거나 바닥이나 벽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하고 신고합니다.



사례 ②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합니다.”

2020년 1월, 부모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아이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신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끼인 상태로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작동해 발가락에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위험하며 어린이의 두 발이 노란 안전선에 잘 들어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안내도 확인!

출입문 및 창문, 피난 동선, 소화기, 발신기, 비상구, 엘리베이터, 완강기 그리고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출처: 피난 안내도 작성 기준, 소방청]

여행지별_기타 실내외 시설

2. 경기장



경기장 방문 시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의 위치를 표시한 경기장 안내 지도를 확인합니다. 출입구와 관람석 통로, 계단 등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람 시 난간에 기대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합니다.

경기 관람

경기장 안내 지도를 참고하여 자신의 좌석에서 가까운 비상 대피로를 확인합니다.

소화기, 자동 심장 충격기(AED) 등 안전 장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장은 통로가 좁고 가파른 계단이 많아 이동 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난간에 많은 사람이 기대면 무너질 수 있으니 난간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ライター 등 화기 사용은 삼갑니다.

출입구 이용 시 인파에 밀려 넘어질 수 있으니 차례를 지켜 출입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신속히 119로 신고합니다.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하면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한 응급 처치를 합니다. 대피해야 할 경우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르고 안내 방송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비상 시 출입구로 인파가 몰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차분히 이동합니다.



사례 ① “관람석 난간에 기대면 낙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프로 축구 경기 관람객이 경기장으로 떨어져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관람객은 과음을 한 상태에서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다가 떨어졌습니다.

관람석은 경기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낙상하면 골절이나 찰과상,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음을 자제하고,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거나 위로 올라서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② “경기장 통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친구들과 야구 경기 관람을 간 한 남성은 응원 중에 매점을 가려고 이동하다가 통로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기장의 통로는 좁고 계단은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걸어야 합니다. 또한 좌석 옆 통로나 계단 위에 가방을 두면 다른 사람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 시 대피해야 할 경우에도 방해물이 될 수 있으니 가방이나 소지품은 자신의 무릎 위나 좌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 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업부 교육사업팀 손민기 팀장

평소 위급 상황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심폐 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 방법과 소화기 등 안전 장비 사용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또한 경기장이나 스포츠 시설에는 안전 요원을 비롯한 운영 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니,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요원과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 시 부상 방지 요령

- 팔을 앞으로 뻗어 ▶ 오른손을 왼쪽 팔 안쪽 잡기
- ▶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잡기 ▶ 가슴 앞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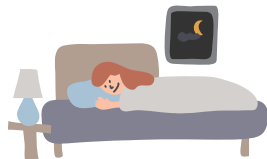


INFO

스포츠안전재단 1899-0547 www.sportsafety.or.kr

- 스포츠 안전 교육 프로그램, 안전 동영상, 안전 매뉴얼

3. 숙박 시설



여행지의 숙박 시설을 선택할 때는 화재나 각종 사고의 대비책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합니다. 또한 숙소 이용 시 화기 사용에 주의하며, 취침 전 전기 및 난방 기기를 확인합니다.



숙소 선택 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숙박 시설 내에 소화기와 완강기 등 안전시설, 재난 배상 책임 보험 등 시설 안전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난방 기기*를 이용하는 업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처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체크인 시

소화기, 휴대용 조명등 등 안전시설과 비상 안내도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합니다.

비상구에서 본인 객실까지의 경로를 기억하고 비상계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객실 내 휴대용 조명등의 작동 여부와 완강기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숙소의 이름과 위치를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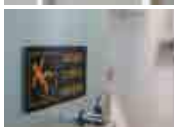


숙소 이용 시

취침 전에는 전기 코드 등 전기 시설을 살펴봅니다.

지갑과 핸드폰 등 개인 소지품은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부대시설 이용 시 충돌에 주의하며, 특히 바비큐 시설과 같은 화기 사용에 주의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지상이나 야외로 나가기 어렵다면 계단을 이용해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을 금하고 벽을 두드리는 등 외부로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조를 기다릴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체력 소진을 방지합니다.

지진 발생 시 갈라지지 않도록 문은 열어 두고 테이블 아래로 대피하거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개별 난방 기기는 주택 건물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난방 기기로서 주로 연탄, 전기, 가스,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사례 “화재 발생 시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합니다.”

2014년 한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모두 질식사했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불에 의한 화상은 물론 연기로 인한 질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 시 수건이나 옷 등 천에 물을 묻힌 후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로 안전한 숙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은 누구나 관광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을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인증 제도로 전문 평가단이 시설, 서비스는 물론 위생과 안전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합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는 대한민국 구축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 내 '한국관광 품질인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487개소, 2020년 1월 기준)

TIP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직접적인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이명, 호흡 곤란, 맥박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하고 실내 공간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 방법!

완강기 지지대 고정 확인

▶ 완강기 후 지지대 연결 후 돌려 잠그기

▶ 안전벨트 가슴 착용

▶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김

▶ 하강 지점 위험 요소 확인

▶ 줄 떨어뜨리기(안쪽 지지대 밖으로)

▶ 양팔 벌리고 벽을 바라보며 하강

[참고 : 일어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소방서전, 숫자로 보는 완강기, 소방청 공식 블로그]



INFO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https://safestay.visitkorea.or.kr>

- 전국 민박 인허가 업소 조회 및 안내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www.gocamping.or.kr

- 전국 캠핑 시설과 캠핑 주의, 미등록 야영장 신고 접수